

안식과 신뢰: 계명 4 & 5

출애굽기 20:8-12

소개

오늘 우리는 New City Catechism의 질문 10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10문: 하나님께서 제4계명과 제5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 안식일에 우리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에 시간을 보내고 일상적인 일을 쉬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영원한 안식일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한 징계와 지시에 복종합니다.

오늘의 성경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출애굽기 20:8-12에서 4계명과 5계명을 읽을 것입니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일주일에 엿새 동안의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0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안식일이니라 그 날에는 너희 집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는 너와 네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너희 중에 거하는 모든 외국인이다.

11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는 쉬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보내어 저에게 지혜와 진리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진리에 열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라도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러나 나는 때때로 우리가 넷째 계명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원어에서 ”살인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일 뿐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넷째 계명은 55단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 더 큰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는 물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간을 내어 안식일의 이유를 설명하셨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안식일은 기독교인들에게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은 “16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언약을 삼아 대대로 지킬지니라. 17 여호와께서 옛새 동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상쾌하게 된 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로다” 하니라

들었어?

하나님은 안식일이 앞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또한 안식일의 기초가 창조의 맨 처음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친히 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쉬실까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의 일은 완전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후 날마다 ”좋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미완성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의 사역의 완성과 완성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2.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만물에게 생명의 본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 안식의 개념은 실제로 창조물에 구워졌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너는 육년 동안은 네 땅에 심고 그 소산을 거둘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농지도 쉬어야 한다. 같은 작물을 해마다 심으면 토양에 영양분이 고갈됩니다. 하나님은 땅과 동물과 사람을 계획하실 때 안식의 필요성을 포

함시키셨습니다. 그는 인간을 하루의 3분의 1을 잠자는 생물로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계의 설계에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지구는 반나절이 어둡습니다. 전구가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자고 쉬어야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안식일의 쉼은 모든 창조의 구조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유로 휴식에 반대합니다. 때때로 나는 할 일 목록에 있는 일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까?

해변으로 도망치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나 나는 휴가를 떠나 쉬지 못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해변은 훌륭하지만 모래와 휴식 시간은 진정한 휴식에 대한 마음속 깊이 느끼는 그리움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소금물이 아니라 생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실제로 필요한 것으로 당신을 만나십니다. 1600년 전 아프리카 교회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이 주릴지라도 당신에게 빵이 되시고, 당신이 목마르실지라도 당신에게 물이 되시고, 당신이 어두울지라도 당신에게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신 안식에 대한 개인적인 권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위와 외모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든 자만과 교만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쉬십시오. 진정으로 쉴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자기 가족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자기를 두려워하는 무리를 피해야 했던 나병환자에게. 이 문둥병자를 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소리쳤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와서 쉬라 내 안에서 몸과 영혼을 위하여 병 고침과 은총을 받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적 배경과 민족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대화조차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생수를 받아 마시라. 갈증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받으십시오. 내 안에 쉬세요.”

자기 의로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십일조를 드릴 수 있도록 커민 씨의 10%를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뿐 아니라 그들이 유대 민족을 위해 고안한 여러 겹의 추가 규칙과 금지령에도 주의 깊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거 지겹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동료 인간에 대해 불친절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중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포기하고 쉴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안에 안식하고 내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부담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당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모든 법을 준수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안에서 쉬고 당신이 더 이상 율법의 부담과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은 나를 따르고 기쁨과 사랑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부서짐, 당신의 안절부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쉬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28) 진정한 휴식은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인가?

작업이 완료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의 일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11절은 “10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하나님의 안식은 자원이나 명성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기나 보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충분한 돈을 저축하거나 진정으로 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모두가 실제로 얼마나 깊고 완고하며 자립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스스로 일을 하기 위해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와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4계명과 5계명 사이의 연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쉬라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도 않고 지혜를 배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New City Catechism 질문은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경건한 징계에 복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모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징계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 부모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그들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해야합니다. 내가 아이들 앞에서 완벽한 척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나의 실패를 자녀들에게 고백할 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나의 첫 번째 직업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 두 번째 직업은 자녀들에게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본보기로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십계명에 둘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좋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에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칙에서 자유를 추구할 때 나는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내가 추구하는 행복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것처럼 고집스럽게 우리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반항은 항상 공허함과 실망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당신 자신의 노력과 노력으로는 약속한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자신이 얼마나 자립심을 인정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인수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 교만을 버리고 내게로 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죽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교만과 자립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삶의 이유를 들어 보십시오.

“7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베푸셨으니 내 영혼이 다시 쉬게 하소서 [왜?]

8 그가 나를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구원하셨도다

9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면전에서 걸읍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면전에서 걷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에서 안식함으로써 발견됩니다. 안식일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이 똑같다고 장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따라야 할 리듬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6일 일하고 쉬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세속적, 영적 의미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신자로서 우리의 한 주는 안식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휴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하는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왕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얻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 우리는 휴식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한 주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일요일에 쉬지 않으면 안식일 선물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친구가 하와이로 2주간의 휴가를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집에 묵습니다. 그러나 랩톱 컴퓨터와 많은 책과 파일을 가져옵니다. 낙원에서 보낸 14일 중 매일을 방에 틀어박힌 채 컴퓨터로 타이핑을 합니다. 휴가인가요? 당신의 몸은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몸은 일을 하고 영혼은 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내 일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면 휴가를 며칠 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항상 안전부절 못합니다. 나의 안전과 성공이 나에게만 달려 있다면 나는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쉬도록 초대하십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일요일에 진정으로 쉬면 월요일에 안식일 정신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정신은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 하나님만을 계속 신뢰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식일 준수는 부담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을 기억하고 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진 나머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면, 즉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낯설거나 새롭다고 느껴지더라도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불안하고, 분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안식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지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에게 당신의 삶의 모든 날을 책임져달라고 간구하여 당신이 죄 사함을 받고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그것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1-2분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일곱째 날은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육체적, 영적 생명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휴식과 예배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하고, 쉬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